

## BEFORE YOU READ

## 1. How would you describe the glass? Is it half full or half empty?

저는 유리잔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.

## 2. An optimist is person who believes good things will happen in the future, while a pessimist believes bad things will happen in the future. Based on this definition, would an optimist see the glass as half empty or half full?

낙관론자는 반쯤 찼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. 낙관론자들은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,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, 그래서 유리잔에 물이 절반이 있어도 여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.

## AFTER YOU READ

## DISCUSSION AND WRITING TOPICS

## 1. In your culture, is change seen as something positive or negative? Why?

저는 문화에서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 함께 같이 변화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화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직장인이라 직장 생활에 대한 직장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수직적인 문화를 강조를 하였지만 지금은 수평적 조직을 대기업 및 여러 회사에서 시행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나이가 어려도 능력과 성과가 좋으면 임원을 할 수 자리를 만들어 주고,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를 준다는 건 바람직한 직장문화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때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
## 2. Are you afraid of change? Why or why not?

저는 두렵지 않습니다. 저의 성격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두려움은 있겠으나 그걸 극복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항상 긍정적인 다가올 것 같다.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변화에 상황이 와도 그 순간 즐기면 자기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## 3. What have you learned about change from these two readings?

변화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행동, 익숙한 일, 익숙한 일상에 따라 살 때 안정감을 느낀다. 저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.